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5호 【부제 제24578호】 주제 103 (2014)년 6월 14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 중 흙 7 련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제 86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 중 흙 7련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제 86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해군 제 597련함부대 부대장 해군소장 진철수동지와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작전적구상과 천리해안의 예지에 의하여 조직된 군부대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핌속에 무적의 전투대로로 강화발전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부대관하 대대들을 찾으시였던 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부대에 어려있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형군업적을 언제나 잊지 말고 싸움준비 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지휘관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싸움군이 아닌 지휘관이 싸움군들을 키울수 없으며 몸에서 화약내가 나지 않는 지휘관이 결전의 그날 포연탄우속으로 대오를 이끌고 돌격해나갈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싸움준비완성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분과 초를 아껴가며 최대의 마력을 내어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지고 또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후방사업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가 맡고있는 전투임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작전계획을 검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작전계획문건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적들의 변화되는 침략전쟁기도와 전투행동방법, 무장장비의 특성에 맞게 주제적해상전법을 더욱 완성하고 능란하게 활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아군 동서함대들의 해상공격작전능력을 비상히 강

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련함부대의 전투임무수행에서 이 군부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싸움준비에서 어디에 모를 박아야 하며 부대의 작전에 유리한 전투환경을 조성하자면 어디에 힘을 넣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 놓여있는 작전전투계획들은 부대를 책임진 지휘관들

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하시면서 군부대의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지면 싸움을 번개같이 불이 번쩍 나게 치를수 있도록 싸움준비완성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전투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강도높이 진행함으로써 모든 전투원들을 다병종화, 다기능화된 진짜배기싸움꾼, 백두산호랑이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래에 대하여도 자세히 료해하시고 부대의 특성에 맞게 군인생활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은 조선인민군 제 863군부대를 대단히 중시한다고 하시면서 군부대가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앞장에서 받들어어나가는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 올해 농업생산을 적극 추동하자

정신력발동의 묘수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황해북도의 농촌에서 전례 없는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6월 2일까지 기쁜면적의 모내기가 지난해에 비하여 열흘이나 앞당겨 끝났으며 꽃밭처럼 알뜰한 강병이발들에서는 네벌 김매기가 시작되었다. 땅도 그 땅이고 사람이요 그 사람이다. 하다면 어떻게 되어 이런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는가.

올은 묘수를 가지고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켜나간 도당위원회의 사업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기로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조직들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시하여 벌려야 합니다.》

근중과 일도 같이 걸린 문제도 풀이주면서 정을 주어야 심장의 문을 열수 있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다.

그 숭고한 뜻을 실현에 옮겨 구현해나가는것을 도당책임일꾼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제로 풀이하였다.

정신력발동의 묘수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황해북도 당 위원회 사업에서

으로 내려갔다. 2분조장의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책임일꾼은 분조원들의 생활과 분조농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다정한 정을 느낀 녀성분조장은 분조농사에서 걸린 문제는 물론 분조원들을 단합시키는데서 애를 먹던 사실까지 다 털어놓았다.

다음날 아침 분조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책임일꾼은 농업을 주력방향으로 정해주시고 올해의 첫 대회로 분조장들의 대회를 마련해 주신 경에 대한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귀에 속속 들어가게 해설해주기도 하고 성실한 땅으로 쟁을 많이 생산하라는 목표를 제시하고는 대회를 앞두고 분조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을 주며 그들을 불려일켰다.

그후에도 일제군 심홍철동생장의 모내기전투장에 달려나간 도당일꾼들은 이른 새벽 남면저포장을 타고왔어 농사일을 간지켜 하는가 하면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친철육의 정으로 풀어주어 농업근로자들을 감동시켰다.

무릎을 마주해야 정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정을 주는 일꾼들의 정치사업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올해에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농사군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농업근로자들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정을 주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열의를 비상히 앙양시킨 도당위원회는 사상적인 원바람으로 그 열의를 총괄발시켰다.

도당위원회는 황주군 구포리에서 진행된 선진선동력량과 수단의 출동모임으로 모내기전투를 위한 사상공세작전의 막을 열었다. 시, 군별선진선동력량과 수단의 준비정황을 점검평가하고 정황선동방법, 직관선동방법 등 포진정치사업과 관련한 실습하는 보여주기식 있는 이날의 모임을 통하여 도안의 사상일꾼들은 드세한 집중포화로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추동할 결심을 새롭게 다지였다.

집중경제선동을 위한 면민일조직사업이 진행되었다. 모내기전투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도당위원회의 해당 부서일꾼들과 도안의 예술단체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당, 행정직 일꾼들이 참가한 가운데 집중경제선동조직안이 발표되었고 그에게 선수적인 대책들이 토로되었다.

경제선동대원들의 선동활동은 도안의 모내기전투자들을 들끓게 하였다. 25명의 강사들로 조직된 집중경제선동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리원시 미꾸라지농장을 비롯하여 신계, 곡산, 장흥군 등 도안의 시, 군농장들을 돌면서 강연선동활동을 전진적으로 진행하였다.

회의실이나 회관이나 포진에서 진행되는 참신한 강연선동활동은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동시켰다. 5월 6일부터 도예술단, 도예술선진대 등 여러 예술단체의 배우, 교원, 학생들로 구성된 여러 편대의 경제선동대가 도안의 농장별들을 돌면서 참신한 예술선동활동을 진행하였다. 도미술창작사 부를 비롯한 미술부문의 창작가들은 실감있는 직관선동으로, 도출판물관리국에서는 참신한 도사선동으로, 도작가동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사상작과 광중으로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 주었다.

집중경제선동대의 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하는데서 도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것은 경제선동대원들이 박력있는 선동활동과 함께 헌신으로 농업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선동대원들은 모내기전투 전 기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힘있는 선동활동과 성의있는 지원사업으로 그들의 정열을 발동시켰다.

도당위원회는 도안의 농촌선동원들이 1만 5천여대의 포진

를 좌우하는 관건적과리로 된다. 그러나 없이 가솔이 지속되고있는 올해의 기상조건에서는 더우기 그렇다고, 그모습에 말고 그날도 그는 양수기의 정상가동정황을 알아보느라 바빠져 나갔던것이였다. 그 모습에 감동된 양수기운전공들은 결심을 든든히 하고 양수기수리에 떨쳐나섰다.

지난 시기 같은 그런 정황에서 자제로 수리한다는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좁은 기간에 양수기수리를 맡김이 끝났다. 이로써 모내기를 일장대 내미는게 기여하였다.

어느날 밤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푸르게 단장되어가는 포진의 구석구석을 밝히려 모내기실태를 알아보던 리당비서는 어느 한곳에서 모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 생각할 새가 없었다. 그는 성령성령 논판에 들어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농장원들의 기색은 었다. 하루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는 생각만 하였지만 남은 모음을 말끔히 훑을 생각은 하지 못했던 자신들이었다. 그날 리당비서는 농장원들에게 떠놓은 모를 늦게 쫓는것만큼 알곡수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주어진 자각을 가지도록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모내기전투기간 리당일꾼들은 비단 전투원장으로부터 바깥을 이어가지 않았다. 시간을 짜내어 농장원들의 가정방문도 수시로 하였다. 가정생활에서 예로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줄것은 제때에 풀어주기도 하였다. 열을 남긴 기간 리당비서가 찾은 농장원가정만 해도 수십세대에 달한다고 한다.

리당일꾼들의 모범을 본받아 관리위원장 김수일, 제 1작업반 반장 김성훈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모든 일꾼들이 바깥을 이어가며 심금을 울리는 방법으로 농장원대중을 이끌었다.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는 실로 크다.

단위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파시되는 속에 제 1작업반이 군적으로 모내기를 제일먼저 끝냈으며 리는 단원한 농장에서 앞선 단위로 농장을 떨치게 되었다.

리당일꾼들이 걸은 밤길, 함으로 그것은 한해농사의 성과가 리의 주인인 농장원자신들에게 결정적으로 달려들었다. 생김을 새겨준 의미깊은 밤길, 기적과 혁신으로 힘있게 추동한 지름길이었다. 이런 밤길은 걸을수록 좋다.

본사기자 김향란

본사기자 전경서

이신작적으로 이루어진 성과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정복하기 위한 영농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 당일꾼들이 서야 할 위치는 대외의 자라리이다.

영농전투에서 일꾼의 이신작적은 가장 위대한 선동으로 된다. 배전군당위원회 일꾼들은 실천을 통해 이것을 체현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이 이신작적하듯 하는것은 허나나 힘있는 선동이다.》

군당위원회는 일꾼들의 이신작적문제를 실무적인 문제로 대하지 않았다. 일꾼들의 자각문제로 보았다.

군의 전반기사업은 책임진 군당책임일꾼들은 누구보다 많은 일꾼들을 안고 바빠 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제일 부족한것이 시간이다. 하지만 이곳 군당책임일꾼은 협동농장에 나가면 농장원들과 어울려 하루에 4시간, 여름에는 6시간간단히 허리가 늘었다. 비모가 가득히 담긴 콤바인지를 지고 신발이 닳도록 수건을 부지런히 오고가는 일꾼들의 일분은 모내기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농장원들은 두류, 새물 일하였다. 3일동안에 해야 할 면적의 모내기를 하루동안에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후면 협동농장 제 3작업반에 나간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꾼들과 제 7작업반, 제 8

작업반에 나간 군민위원회일꾼들도 모내기전투장에서 결사적으로 일하였다. 농장원들보다 한발 먼저 포진에 나가고 점심식사도 포진에서 하면서 날이 어두워 논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하는 군공기관 일꾼들의 일분에서 농장원들이 받은 충격은 었다. 이 소식은 한일단위 전내 온 군에 퍼졌다.

군안의 협동농장지구에 살고있는 로동자, 사무원부양가족들이 농사일을 보다 적극 도와나섰다. 수천명의 가두민민원들이 뒤뚱뒤뚱 작업반, 분조들을 추켜세우며 농장원을 응원하였다. 말그대로 바깥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내기전투에 총동원되었다. 일꾼들이 이신작적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대중과 한평이 되어 혁명적공공관을 구현해나갈수 있는 대중에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며 대중의 힘을 받았으니 두드러진것이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불분식케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보다 모내기를 보름이나 앞당겨 끝낼수 있었다.

영농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자면 논속이나 밭머리에선 땀도 사람보다 포진에서 실지땀을 흘리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로력이 가장 강한 모내기전투때에 만약 일꾼들이 조금 일꾼들을 불러내어 작업실적을 따지고 회의실에서 앞으로 나가자고 호소나 하는 식으로 일하였다면 과연 이런 성과가 있었겠는가.

일꾼들은 땀을 흘려도 남보다 더 흘리고 땀을 저도 남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야 한다. 그래야 단위사업에서 비약이 일어난다.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김충훈

본사기자 손영희

배전군 당 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에서

본조원들과 줄곧 모내기를 하였다. 하여 분조가 그날 모내기전투에서 농장적으로 제일 높은 실적을 내게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일꾼들이 이신작적을 대중발동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나간다고 계획하고 조개를 주동적으로 조성하였다.

모내기가 시작된 날 250여명의 군공기관 일꾼들이 여러가지 정치사업자료들과 선동수단들, 농장원들에게 안겨줄 지원물자들이 들어있는 배낭을 한달한시에 금성협동농장 작업반들의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풀어주었다. 군당위원회가 일꾼들에게 농장이 아니라 한 농장에 집중적으로 파견한다는 목적이 었었다.

첫째로는 로력사정이 긴장한 모내기시기에 한해 농장적 집중적으로 도우주기 모내기전투에서 높은 실적을 내게 하자는데 있었고 둘째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일꾼들에게 올바른 공중관을 세워주며 셋째로는 대중의 정신력에 더 큰 불을 달자라는 것이 었었다. 이날 군당일꾼들은 제 2작업반의 모내기전투장으로 나갔다. 드넓은 포진에서 농장원들과 어울려 나뉘어 손으로 4시간, 여름에는 6시간간단히 허리가 늘었다. 비모가 가득히 담긴 콤바인지를 지고 신발이 닳도록 수건을 부지런히 오고가는 일꾼들의 일분은 모내기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농장원들은 두류, 새물 일하였다. 3일동안에 해야 할 면적의 모내기를 하루동안에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후면 협동농장 제 3작업반에 나간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꾼들과 제 7작업반, 제 8

작업반에 나간 군민위원회일꾼들도 모내기전투장에서 결사적으로 일하였다. 농장원들보다 한발 먼저 포진에 나가고 점심식사도 포진에서 하면서 날이 어두워 논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하는 군공기관 일꾼들의 일분에서 농장원들이 받은 충격은 었다. 이 소식은 한일단위 전내 온 군에 퍼졌다.

군안의 협동농장지구에 살고있는 로동자, 사무원부양가족들이 농사일을 보다 적극 도와나섰다. 수천명의 가두민민원들이 뒤뚱뒤뚱 작업반, 분조들을 추켜세우며 농장원을 응원하였다. 말그대로 바깥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내기전투에 총동원되었다. 일꾼들이 이신작적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대중과 한평이 되어 혁명적공공관을 구현해나갈수 있는 대중에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며 대중의 힘을 받았으니 두드러진것이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불분식케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보다 모내기를 보름이나 앞당겨 끝낼수 있었다.

영농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자면 논속이나 밭머리에선 땀도 사람보다 포진에서 실지땀을 흘리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로력이 가장 강한 모내기전투때에 만약 일꾼들이 조금 일꾼들을 불러내어 작업실적을 따지고 회의실에서 앞으로 나가자고 호소나 하는 식으로 일하였다면 과연 이런 성과가 있었겠는가.

일꾼들은 땀을 흘려도 남보다 더 흘리고 땀을 저도 남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야 한다. 그래야 단위사업에서 비약이 일어난다.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김충훈

본사기자 손영희

함경북도송배전부

일마침 함경북도송배전부에서 농촌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마련하던 때의 일이다.

준비정황을 알아본인 초급당비서 기철호동무는 마른땀은 영농물자창목을 놓고 생각에 깊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력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난 시기에 비해올 때 량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올해에 농업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력방향으로 정해진 당의 의도를 다시금 새겨주도록 만조할수 없었다. 하여 그는 해당 농장의 영농사업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어랑군 이영철동생장 제 4작업반과 제 6작업반으로 나갔다.

초급당일꾼이 현지에서 나가본것은 잘한 일이었다. 양수설비들이 적지 않게 고장나 애를 먹고있었다.

초급당일꾼은 지금까지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느라 하였지만 자기들의 생각이 덜 미친 구석이 있었다는것을 향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막상 그 설비들까지 마음을

초급당위원회에서

쓰면서 수리해줄 타산을 해보니 많은 자재와 로력이 요구되였다.

하기에 초급당일꾼이 그 문제를 상징시키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와하였다. 지금 준비한 영농물자도 많은데 그것까지 꼭 해야 하겠는가 하는 눈치였다.

그러는 일꾼들에게 초급당일꾼은 말하였다.

《모든 력량을 농촌에 총집중, 총동원하라는 당의 요구는 누구나 하던것에 신실정도로 농장을 도우라는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크게 봅시다.》

초급당일꾼의 말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일꾼들에게 준 충격은 었다.

그날 일꾼들은 농촌지원사업에서 주어진다는 사상관점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깊이 느꼈다.

그러하여 지배인 문제뿐, 부지배인 김성숙동무들을 비롯한 일꾼들이 말을 걸어보았고 나선 가운데 얼마후 이영철동생장에게는 많은 영농물자와 함께 특색있는 지원포를 더 갖추게 되었다.

농장원들과 한친호에 신실정도로 농촌지원사업을 실시있게 해나가도록 대중을 힘있게 부어어나가는 함경북도송배전부 초급당위원회 일꾼들의 모습은 돋보인다.

본사기자 최영길

이런 밤길은 걸을수록 좋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야 합니다.》

모내기전투로 리가 높고있던 지난 5월 어느날이었다.

자정도 넘은 깊은 밤 제 1작업반에 위치하고있는 양수장으로 양수기운전공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셋방의 일로 양수기가 고장이 생겼던것이였다. 그래서 필요한 부속품들을 마련해가지고 오는 길이었다. 양수장에 다달은 그들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누군가 양수기를 손질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땀젖은 얼굴, 기름묻은 손! 리당비서 로명일동무였다.

《리당비서동지, 정말 귀찮습니다. 우리가 일을 쓰게 하지 못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미안하오. 좀더 깊이 관심하였더라면 이런 고장쯤은 아예 없었을것입니다.》

순간 양수기운전공들의 가슴은 뭉클하였다.

사실 때때로 양수장을 찾으며 자기들보다 양수설비에 더 관심을 돌리는 사람은 다른이런 리당비서였다. 논밭에 물을 충분히 대주는것이 한해농사의 성과

본사기자 동세웅

송천리 당 위원회

를 좌우하는 관건적과리로 된다. 그러나 없이 가솔이 지속되고있는 올해의 기상조건에서는 더우기 그렇다고, 그모습에 말고 그날도 그는 양수기의 정상가동정황을 알아보느라 바빠져 나갔던것이였다. 그 모습에 감동된 양수기운전공들은 결심을 든든히 하고 양수기수리에 떨쳐나섰다.

지난 시기 같은 그런 정황에서 자제로 수리한다는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좁은 기간에 양수기수리를 맡김이 끝났다. 이로써 모내기를 일장대 내미는게 기여하였다.

어느날 밤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푸르게 단장되어가는 포진의 구석구석을 밝히려 모내기실태를 알아보던 리당비서는 어느 한곳에서 모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 생각할 새가 없었다. 그는 성령성령 논판에 들어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농장원들의 기색은 었다. 하루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는 생각만 하였지만 남은 모음을 말끔히 훑을 생각은 하지 못했던 자신들이었다. 그날 리당비서는 농장원들에게 떠놓은 모를 늦게 쫓는것만큼 알곡수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주어진 자각을 가지도록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모내기전투기간 리당일꾼들은 비단 전투원장으로부터 바깥을 이어가지 않았다. 시간을 짜내어 농장원들의 가정방문도 수시로 하였다. 가정생활에서 예로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줄것은 제때에 풀어주기도 하였다. 열을 남긴 기간 리당비서가 찾은 농장원가정만 해도 수십세대에 달한다고 한다.

리당일꾼들의 모범을 본받아 관리위원장 김수일, 제 1작업반 반장 김성훈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모든 일꾼들이 바깥을 이어가며 심금을 울리는 방법으로 농장원대중을 이끌었다.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는 실로 크다.

단위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파시되는 속에 제 1작업반이 군적으로 모내기를 제일먼저 끝냈으며 리는 단원한 농장에서 앞선 단위로 농

새 세기 산업혁명의 진군길에 울려 퍼지는 승리의 노래

공훈 국가 합창단 희천에서 대절찬속에 공연

【희천 6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새 세기 최첨단과학기술의 불길이 타고온 희천땅에 최후 승리의 진군가가 힘차게 메아리치고 있다.

우렁찬 혁명군가의 피성으로 자강도사람들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며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불타오르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순회 공연이 갈고리에 이어 희천에서 막을 올렸다.

13일 희천시의 기계공업부

입근들과 로동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의 잊을 수 없는 6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한 뜻깊은 장소에서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사령부 나팔수들의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감격과 환희는 끝이 없었다.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관현악

과 노래편곡 《태양을 우리러 부르는 노래》, 남성합창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 《원수님을 당할자 없다》,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여성 4중창 《우리 원수님》,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내 심장의 목소리》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역사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자립적민족경제의 만년기쁨을 마련해주고 선군의 위력으로 주체공업의 무궁

무진한 잠재력을 다져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신진지명과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누구도 생각할수 없었던 CNC화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포성으로 조국변영의 활로를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정신과 로고를 되새겨주는 남성합창

《돌파하라 최첨단을》이 울려 퍼지며 장내를 격정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자강도로동계급의 심장속에 새겨진 시대의 명곡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를 들으면서 관람자들은 아버지장군님을 굳게 믿고 결사관철의 정신력으로 최첨단 과학의 진군길을 개척해온 이치 못할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승리의 추억과 긍지,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는 무대에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 일세》,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축복받은 나의 삶》,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 등이 펼쳐져 공연분위기는 더한층 고조되었다.

천만군민을 최후승리로 고무 추동하는 합창단의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과 혈연의

정을 맺고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고결한 총성으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나갈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관람자들의 열렬한 요청으로 또다시 울려 퍼진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는 희천로동계급의 심장을 울리는 격동시였다.

희천에서의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은 계속된다.

최고사령부직속 예술부대의 혁명군악에 발걸음을 맞추어 CNC기계바다를 펼쳐놓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한것처럼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들이 대비약적혁신으로 최첨단들과의 1번수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갈 최첨단로동계급의 혁명적의지를 천백배로 승화시켜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희천에서의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은 계속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민주주의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3일 황성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장, 조명호 교도 조선고급학교 교장, 장달려,

김태호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정성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우리 나라 의무상과 모잠비끄외무 및 협조상 회담

모잠비끄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외무상과 모잠비끄 외무 및 협조상의 회담이 11일 외무 및 협조성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김태호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대표단 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외무 및 협조성 아시아 및 오세안안주담당국장, 주조 모잠비끄특명전권대사, 관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모잠비끄정부와 인민은 조선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다방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나라의 자주적외교정책을 위한 조선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고 강조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호상 관심사의

모잠비끄외무 및 협조상 회담

모잠비끄외무 및 협조상 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모잠비끄 도착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11일 모잠비끄 공화국에 도착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대표단 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외무 및 협조성 아시아 및 오세안안주담당국장, 주조 모잠비끄특명전권대사, 관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모잠비끄외무 및 협조상 회담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15일 9시부터 김일성경기장에서 보천보태권술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1차 남자경기 4. 25일과 리명수팀, 평양팀과 기관차팀사이에 진행

된다.

이날 10시부터 보천보태권술체육경기대회 기계체조 성인급 기체별내자립승경기가 기관차체육단에서 있게 된다.

평양체육관에서 권투 남자, 레슬링 남자자유형, 고전형, 여자자유형종목의 여러 종목대결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리뜨바에 갔던 철도성대표단 귀국

리뜨바에서 진행된 철도협조 있던 전진수철도상을 단장으로 하는 철도성대표단이 13일

리뜨바에서 진행된 철도협조 있던 전진수철도상을 단장으로 하는 철도성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장혁 철도성 1부상이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번영의 길에 바치는 삶이 값있다

농장원들은 그를 애국가라고 부른다

남포시인민보안국 아래단위 김영록동무

몇해전 봄 밤이 떠들썩할 무렵 김영록동무가 환한 얼굴로 방에 들어섰다.

《이걸 좀 봐주시시오.》 그는 들고는 도넛말이를 책상위에 펼쳐놓았다.

당시 농장의 기계화작업반에서는 트랙터기계의 피스톤과 가라지가 빨리 닳는 것이 하나의 난문제로 제기되었다.

김영록동무가 그것을 풀겠다고 나섰다.

《당신이야 기술감독사업이나 착실히 하면 될텐데 그런 데까지 마음쓰다니요.》 안해가 걱정스럽게 말하였으나 김영록동무는 《이것은 내 일이지.》라고 하며 혼연히 웃음지었다.

그는 트랙터운전수들과 함께 일하면서 방도를 모색하였다.

김영록동무는 기계공장의 여러 기술자들과 오랜 농촌기계화조병들을 만나 합의를 거듭하면서 공기청정기도 면을 끝내내 완성하였다.

봄이 가 알싸하게 풍기던 일출수 없는 밤 전야호동무의 책상위에 그가 펼쳐놓은 것은 바로 그 공기청정기 모델이었다. 얼마 안되어 남포

시안의 협동농장들의 트랙터들에 공기청정기가 도입되어 트랙터의 기관수명과 보수주기가 종전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긴절한 문제를 풀었다고 농장원들이 고마움을 금치 못하였으나 김영록동무는 오히려 속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트랙터들을 만가동시키는데 자기의 본분이라고 소박하게 대답하였다.

연제인이 전야호동무는 여러가지 도색감들을 꾸러두고 정문을 나서서 김영록동무를 만났던 것이다.

집의 가구를 손질하려는 가고 하자 김영록동무는 농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트랙터들의 적체해결책이 나왔거든요.》

기술감독사업을 하면서 부족점을 지적하기 전에 자기가 내놓고 싶은 것이 없는 생각을 먼저 하는것이 그의 습벽이었다.

담당한 농장들의 작업반들이 트랙터로 보관하는 차고를 앞뒤로 만들어놓을것을 발기하고 그 건설을 앞장서서 이끈 사람도 다름아닌

무는 심증을 더 놓았다.

《농장원들이 아버지장군님의 명전에서 피눈물을 흘릴 때 전 정말 피스러웠습니다. 농사가 잘 안될때는 농장원전기체들의 기술감독사업을 맡은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는 그의 이야기에서 전야호동무의 가슴도 젖어있었다.

《동무의 마음을 알겠소. 나도 힘껏 두지.》

그해에 김영록동무는 안해와 각지에서 사는 형제들과 자식들의 도움속에 와우도구역안의 협동농장에서 새해 트랙터보수측 전방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장에서 애를 먹고있는 중요부속품들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농업전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러 바쳐가는 김영록동무.

그 소꿉은 애국의 마음을 지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향을 다 바쳐 조국을 받들어가는 김영록동무를 농장원들은 애국가라고 부른다.

본사기자 허명숙

돌격전의 앞장에서 우리를 찾으라

형봉탄광 청년탄부들

《청춘을 빛나게 살자!》

형봉탄광의 청년탄부들이 이 빛나는 삶과 투쟁의 구조에 갇히는 리상과 포부를 엮고 석탄산업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청춘의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조국을 빛내이고 시대를 열치는 청년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얼마전 형봉탄광의 청년들격대원들이 2호지수용을 가서내기 위한 전투를 벌일 때였다.

수십년동안 쌓인 감람을 처리하는 작업은 간단치 않았다.

침침한 막장, 허리치는 물속, 여러 시간동안 일하느라 청년들격대원들의 작업복은 온통 감람범벅이 되였다.

이때였다. 그들이 일하는 곳으로 수십개의 안전등의 불빛이 마주왔다.

교대를 마친 청년탄부들이 달려오고있었다.

《그렇게 무리해도 몸들이 일없겠소?》

바람에 청년들격대원들이 또 한바탕 폭소를 터지였다.

혁신의 앞자리를 양보할 줄 모르는 청년탄부들의 승벽심이 한가정의 작은 경쟁도 표에도 그대로 비쳐있는것이다.

지침을 모르는 청춘의 열정과 기백으로 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형봉탄광의 청년탄부들, 《나는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 라는 애국의 물음, 량심의 물음을 스스로 제기하며 탄전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그 모습은 얼마나 대견하고 돋보이는것인가.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모르는 땀을 바치는 리원철동무와 가정에서 준비한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찾아온 차은화동무, 청년탄부들의 이런 뜨거운 마음들에 떠받들려 석탄산이 나날이 높아지고있는것이다.

《당이 부르는 돌격전의 앞장에서 우리를 찾으라.》

청년탄부들은 이렇게 총정과 애국의 애침을 심장으로 터지며 아낌없이 흘리는 성실한 방법으로 청춘시절의 자서전을 아름답게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조경철

우리 자동차운전사

명천탄광 운수중대 자동차 운전사 김석철동무는 제대되어 단원내내 때로부터 오늘까지 10여년동안 석탄생산에 필요한 광목운반을 맡아 운행길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그는 언제나 소공구들과 예비부속품들을 그쁘게 갖추어놓고 자검자수를 잘하여 자동차의 실용률을 높은 수준에

서 보장하고있다.

나을 가려보기 힘든 눈비 내리는 날에도, 찬바람부는 날에도 그는 석탄생산에 필요한 광목보장을 위해 운행길을 하루도 드림이 없이 달려가고있다.

탄부들과 일군들은 그를 가리켜 우리 자동차운전사라고 부르고있다.

로동통신원 최성순



보람찬 일터에 넘치는 청춘의 희열과 광만 -선교전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혁명적당건설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절세의 위인

세계정치의 원로, 사회주의위업의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인들은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적당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주체 81(1992)년 10월 10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높은 고전적로카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적인 로카에서 지금 사회주의위업을 시련을 겪고있는 당면 사회주의의 의인적 혁명적당들의 투쟁목표로, 진보적인인류의 지향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전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집권당건설의 역사적교훈을 심오히 분석하시었다.

로카가 발표되자마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투쟁방향을 찾아 사ought있던 세계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은 커다란 감동에 휩싸였다.

어찌 그렇지 않았는가. 사회주의위업을 어떻게 전진시켜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을 령도하는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당건설의 출발은 지침을 가지고 투쟁하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당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임무

를 옮겨 수행하는가 수행하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된다.

사회주의를 위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여러 근로인민대중이 피흘리며 투쟁하여 온 진로정은 승리의 열쇠도, 실패의 원인도 당건설문제에 달려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혁명의 항도적력량인 당을 와해변질시키는데 화살을 돌리고있는 조건에서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판관적문제라 나신다.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는 제국주의 어용나팔수들이 사람들의 넋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형편에서 혁명적당들을 일으켜세우는것은 결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비범한 통찰력과 천리헤의 예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통찰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전폭으로 지닌 위대한 령도자만이 할수 있다.

김정일동지는 세계 혁명적당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끝바른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뛰어난 사상리론적적지와 자질, 당과 혁명에 대한 오랜 령도경험과 묘술을 지니시고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탁월한 령도자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체화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시였으며 가장 전투력있고 활력있는 전위대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

리 당은 자주시대의 혁명적당들의 본보기로, 기수로 되었으며 사회주의위업,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항도적력량, 전위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게 되었다.

일찍이 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고 생명이며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여기에 혁명승리의 결정적 열쇠가 있다고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비롯하여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혁명적당 건설과 활동의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명시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주시였을뿐 아니라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당들이 공동의 투쟁경쟁을 가지고 단결하여 투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혁명적당건설을 령도하시는 바르스른 속에서도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과 인사들을 만나주시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입장에서 혁명적당을 건설하고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시기에는더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지도에 의하여 세상에 발표된 역사적인 평양신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

시키자》는 사회주의가 인류의 리상이며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라는것을 확고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명시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당들이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당을 건설하고 국제적단결과 령도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세계 진보적당들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시신대로 당건설과 활동을 옹호하고 당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당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어 세계사회의 운명을 강화발전시키는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오늘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인류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리들로서 수행이 이루어지면 당도 위대하고 결출한 승리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당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한다는 력사의 위업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혁명적당건설의 위대한 력사를 안아오신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업적은 진보적인인류의 마음속에 길이 빛날것이다.

시대의 거장

1980년대 중엽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나라를 비공식방문하시었을 때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나라의 당 지도자는 몇몇 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만나 친견자담과 품모양에 매혹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시었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

어느해인가 전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까르민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였다. 그는 우리 나라의 한 일군에게 만수내덕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의 높이에 대해서 물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까르민은 《빠리에 있는 개신 문보다 비할바없이 높다. 김정일성주님의 존엄있는 권위와 일치하게 주석님의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리들로서 수행이 이루어지면 당도 위대하고 결출한 승리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당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한다는 력사의 위업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혁명적당건설의 위대한 력사를 안아오신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업적은 진보적인인류의 마음속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현도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

중추에 수령을 받드는 마음이 하늘끝에 닿아있다. 100여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력사에 영웅스나 쓰말린과 같이 명망 높은 후계자들이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지는 못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는 말이 사실인가 싶다.》고 말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

중추에 수령을 받드는 마음이 하늘끝에 닿아있다. 100여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력사에 영웅스나 쓰말린과 같이 명망 높은 후계자들이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지는 못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는 말이 사실인가 싶다.》고 말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

중추에 수령을 받드는 마음이 하늘끝에 닿아있다. 100여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력사에 영웅스나 쓰말린과 같이 명망 높은 후계자들이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지는 못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는 말이 사실인가 싶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투쟁과 승리의 영원한 상징

주체 72(1983)년 9월 당시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위원회 제 1부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진 35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을 깊이 체득

투쟁과 승리의 영원한 상징

주체 72(1983)년 9월 당시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위원회 제 1부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진 35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을 깊이 체득

하였다. 그것이 현실로 꽃피는 우리 나라를 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더욱 절감하였다.

그는 자기의 이러한 사상 감정을 피력하고자 문필가는 아니었지만 붓을 들어 《사회주의 승리의 위대한 상징》이라는 장문의 글을 썼다.

이때에 그가 쓴 글의 한 대목을 소개한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

중추에 수령을 받드는 마음이 하늘끝에 닿아있다. 100여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력사에 영웅스나 쓰말린과 같이 명망 높은 후계자들이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지는 못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는 말이 사실인가 싶다.》고 말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

중추에 수령을 받드는 마음이 하늘끝에 닿아있다. 100여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력사에 영웅스나 쓰말린과 같이 명망 높은 후계자들이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지는 못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는 말이 사실인가 싶다.》고 말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

중추에 수령을 받드는 마음이 하늘끝에 닿아있다. 100여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력사에 영웅스나 쓰말린과 같이 명망 높은 후계자들이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지는 못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는 말이 사실인가 싶다.》고 말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

중추에 수령을 받드는 마음이 하늘끝에 닿아있다. 100여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력사에 영웅스나 쓰말린과 같이 명망 높은 후계자들이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지는 못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는 말이 사실인가 싶다.》고 말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

중추에 수령을 받드는 마음이 하늘끝에 닿아있다. 100여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력사에 영웅스나 쓰말린과 같이 명망 높은 후계자들이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지는 못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는 말이 사실인가 싶다.》고 말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

중추에 수령을 받드는 마음이 하늘끝에 닿아있다. 100여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력사에 영웅스나 쓰말린과 같이 명망 높은 후계자들이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지는 못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는 말이 사실인가 싶다.》고 말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

중추에 수령을 받드는 마음이 하늘끝에 닿아있다. 100여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력사에 영웅스나 쓰말린과 같이 명망 높은 후계자들이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지는 못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는 말이 사실인가 싶다.》고 말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

중추에 수령을 받드는 마음이 하늘끝에 닿아있다. 100여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력사에 영웅스나 쓰말린과 같이 명망 높은 후계자들이 있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지는 못하였다. 위인만이 위인을 받들줄 안다는 말이 사실인가 싶다.》고 말하였다.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조선로동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즈음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강연회, 독보회, 토론회 등의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다.

기내에술대하에서는 강연회 기내에술대하 미술학부 학부장은 《조선로동당을 불멸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길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올해 6월 19일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김정일령도자의 당령도자는 뛰어난 정치실력으로 조선민족과 인류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멸의 력사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정일주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었다.》

그는 계속해서 김정일주의의 이원적인 리념을 그대로 계승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활동하는것을 당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애받지않도록 하시어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었지만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나 이 제 리아 김일성 - 김정일주의의 전진위원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정일, 자주주의의 거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정일령도자는 세계정치사에 특기할 자주주의의 거장이시다. 그의 정치철학은 자주위업의 지도사상으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주체사상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사상을 혁명적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었다.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었을 때 조선이 이끄러오지 않았던 것은 그의 투철한 자주로선이 있었기때문이다. 그의 자주정치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것은 선군정치이다라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었다. 그의에 의하여 선군정치적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되었으며 선군정치의 위해 조선의 군력이 비정상 강화되고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위용되게 되었다.

조선이 미국의 횡포한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였을뿐 아니라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전향까지 지시하였는 놀라운 현실앞에 국제사회의 찬탄의 폭우를 금치 못했다.》

글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을 조선의 대외활동의 근본리념으로 일관하게 내세우시고 자주화면 세 세계를 건설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들리시었다고 하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의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활동에 힘써주시어 벌리신데 대하여 열거하였다.

기내에술대하에 대통령호 위업 함장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조선로동당령도자는 뛰어난 정치실력으로 조선민족과 인류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멸의 력사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온 사회의 김정일주의의 화강령을 선로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안에 주체사상만이 확 들어차게 하시었다. 또한 조선로동당을 력사의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온갖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대강을 건설할 때,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실수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승리로 향하도록 하는 강위력한 당으로 발전시키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조직사상적결정체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전진시키시었다.

조선이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위성위성체 작 및 발사국으로 위용될것이고있는것은 김정일각하와 그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김정정승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라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김정일각하께서 사업을 시작하시였는 조선로동당령도자께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선군정치로 조선로동당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진보적정세가 한결같이 청송하듯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쌓으신 혁명적당건설업적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다.

본사기자

만민의 열화같은 존경과 흠모의 분출

김정일 화전시회 중국의 대련과 심양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즈음하여 1일부터 5일까지 중국로녕성 대련시에서 김정일화전시회를 진행하였다.

《1964-2014. 6. 19 50돐》, 《중국 대련 김정일화전시회》라는 글발을 드려온 대령기자들이 전 시회장면이 담겨있다.

전 시회장면에는 조종 두 나라 기발을 배경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의 승군정부를 경건하시이는 사진문헌이 모셔져있다. 전 시회장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적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정승동지,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위대한 당의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은 저들의 비위에 굴복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